

5·18 세계 인권운동 이끈다

1 아시아의 '광주' 전도시들

민주화 열풍 네팔 '5월 정신' 씨뿌려

1980년 5월 민주와 인권을 외쳤던 광주의 함성이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 28년 전 한반도 남단의 도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은 이미 아시아 개도국 민주화운동의 아이콘이 될지 오려다. '광주정신'으로 무장한 한국과 아시아 개도국의 청년, 유명 인권운동가들이 각국의 민주화를 위해 뛰고 있다. 5·18 28주년을 맞아 이들의 활동상을 살펴본다.

국제인턴 4년째 동남아 각국 활동 대동·평화정신 알리며 권익 옹호

'광주정신'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 땀 흘리는 한국 청년들이 있다. 5·18 기념재단이 2005년 이후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국제인턴 파견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들이다. 대상 국가는 인권 상황이 열악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이다. 지금까지 10개 나라에 61명의 대학생들이 파견됐다. 이중 13명은 현재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아시아 민중들은 5·18을 유럽의 프랑스 혁명과 비교하면서 놀라워합니다. 민주화는 유럽 선진국에서나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시아에는 아직도 많습니니다." 전남대생 강동훈(28·생명과화학부 4년)씨, 5·18재단 인턴으로 선발돼 지

난해 7월부터 9개월동안 네팔 카트만두에서 NGO단체 INSEC(소외권역 지원센터)과 활동하며 5·18정신을 네팔인들에게 전달했다. 그가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기는 해외에서의 봉사활동 경험 때문이었다. "지난 2005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복구 자원봉사를 하며 현지에서 만난 영국, 미국인들과 대화 도중 광주 5·18에 대해 얘기가 나왔지만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광주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귀국 후 5·18을 알기 위해 5·18기념재단 국제협력팀에 들어간 그는 해외 인턴 파견 프로그램에 응시했다. 그가 네팔에서 한 활동은 사상 처음으로 민주선거를 치르는 네팔인들을



지난 2007년 7월부터 네팔 카트만두에서 현지 NGO 단체와 민주·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5·18재단 해외 인턴 강동훈씨(오른쪽)가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네팔 민주화를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강동훈씨 제공>

위한 총선 감시활동이었다. "한국에서 왔다는 것 보다 광주에서 왔다고 하면 더 빨리 알 정도로 5·18은 이미 국제화돼 있습니다. 특히 왕왕이 무너지고 난 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네팔 사람들에게 5·18은 벤치마크 대상이자, 훌륭한 교본입니다." 전남대 영문과 3학년인 양초희(여·23)씨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태국 방콕에 있는 인권단체 '포럼 아시아'에서 활동했다. 양씨는 "태국에서 한국은 5·18이란 수난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 인정받고 있으며, 부러움의 대상이다"면서 "특히 전직 대통령들이 어떻게 법정에 세워 단죄됐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도 시민단체에서 인턴 생활을 한 전철민(24·전남대 신학과 4년)씨도 비슷한 소회를 안고 있다. 그는 인도 최하계층인 '달리트'를 위한 인권단체인 '시민인권감시위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을 위한 권익 옹호 활동을 했다. 전씨는 "한국 젊은이로서 민주주의를 위한 아시아인들의 연대를 강조했고, 이것이 5·18이 추구했던 대동·평화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림상기자 kps@kwangju.co.kr>

미 쇠고기 한우 둔갑 판매 광주 음식점 시민단체 "불매운동"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광주시 서구 H음식점에 대해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검토하는 등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특별대책위원회'는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판 H음식점 고객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시민단체 차원의 불매운동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위는 업소명을 밝힌 뒤 공개적으로 불매운동을 펼치는 방안과 업소 인근에서 퍼포먼스 및 피켓시위를 벌이는 방안, 업소명을 밝히지 않고도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청과 서구청 등 기관들의 행정조치와 시민단체의 공개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 줄 몰랐다. 광주 YWCA 홈페이지에 공개성당

을 요청한 문묘씨는 "모임에서 H음식점을 자주 이용 했는데 너무 화가 난다"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글을 올렸다. 또 광주시청 시민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모씨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H음식점의 업소명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고 밝혔다. 서영옥 광우병 대책위 사무국장은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되면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장난을 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H음식점은 지난 8일 광주지방식약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의 합동단속에서 미국산 쇠고기 480kg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침 (7504) 김장동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수료 책거 사찰 주지·직장인 무더기 적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찰 주지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직장인 400여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고홍근 모 사찰 주지 황모(여·50)씨를 조세법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황씨에게 발급받은 뒤 직장인들에게 유통하거나 허위기부금 액수가 많은 김모(43)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황씨의 사찰에서 허위기

부금 영수증을 건넌받아 세무서에 제출하고 탈세에 가담한 직장인 409명의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환수조치하도록 했다. 이들은 주로 보험설계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05~2006년 사이 직장인 409명에게 1인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총 3억7천100만원 상당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기부금 영수증 1장당 3만~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유명 내과 의사 아파트서 투신 자살 고교생 물에 빠져 실종 구하려던 전도시 숨져

지난 11일 오전 11시에 광주시 동구 학동 모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광주시내 유명 내과 개인 의사 조모(60)씨가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조씨가 수년 전부터 지방으로 투병해왔다는 가족들의 말과 유서 내용으로 미루 지병을 비판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인원주기자 ahj@kwangju.co.kr>

12일 오후 1시10분께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바닷가에서 박모(19·고3)군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져 실종됐다. 또 박군을 구하기 위해 바닷물에 뛰어 든 여수 모 교회 김모(29) 전도시사가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물에 빠져 숨졌다. 김 전도시사와 박군은 바닷가로 수련회를 나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박영규기자 ypkp@kwangju.co.kr>



5·18 역사기행 5·18민중항쟁 28주년을 맞아 5·18의 흔적이 남아 있는 현장을 답사하는 '역사기행'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 역사기행에 참가한 광주 일곡중 학생들이 12일 오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학생들은 5·18 자유공원과 영화 '화려한 휴가' 세트장, 5·18묘지를 돌며 광주의 이름을 스스로 체휼했다. <관련기사 20면> <위리장기자 jrwi@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for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listings include properties in different areas like 'Joo-it-travel' and 'Joo-it-travel' with prices ranging from 329,000 to 1,990,000. It also includes contact numbers and agent names.